錦江湾消息

鹿市少年足球队赴长参加鲁能德馨杯少儿足球大赛

中国友好城市长沙市 4 月 29 日至 5 月 3 日举办“鲁能德馨杯少儿足球大赛”，鹿儿岛市派出小选手参赛。4 月 24 日鹿儿岛市代表

队结团仪式在市政府举行。14 位少年选手及教练表示要代表鹿儿岛努力发挥水平，为增进两市友谊出力。代表团选手以鹿儿岛市

选拔出的 11 岁以下小学高年级学生为主。除鹿儿岛外，本次少儿足球大赛还有 10 支中国代表队和 1 支尼日利亚代表队参赛。由在 5 场预选赛中获胜的两支球队晋级决赛。鹿儿岛代表队曾在去年的大赛中取得第 5 名的成绩。结团仪式上副市长松永范芳鼓励小球员：“踢好球固然重要，你们还要各处多看

多学，增长见识丰富体验。”东部保健中心的森秀树主干担任团长一同赴长，他表示：“希望加深与长沙的友好关系并带领团队平安返鹿。”小选手代表则表示：“会认真赛好每一场比赛，争取高水平发挥。同时希望交到外国朋友，能和各国选手愉快地交流和相处。”比赛中小选手们如愿取得佳绩，预赛中连胜 5 局成功晋级决赛并最终荣获亚军。来自川上小学校的外园智也小球员还被授予“得分王”称号。代表团于 4 月 27 日启程，5 月 4 日顺利回到鹿儿岛。比赛之外，还参观了长沙太平街等特色景点，并在上海乘坐了磁悬浮轨道列车。

韩国交流员李松姬就任

来自韩国大邱市的李松姬接任鹿儿岛市国际交流顾问职。4 月 14 日，就任仪式在市政府举行。任期 1 年。工作内容涵盖国际交流事务、在鹿外国人咨询支援、公民馆及学校国际交流市政讲座等业务。据本人介绍，李交流员从高中二年级开始学习日语，大学时代进入日本文

学专业学习，喜欢读司马辽太郎、村上春树的小说，听鹿儿岛歌手中岛美嘉的歌，尤其歌曲《雪之华》的歌词更是谙熟于心。李交流员的首次市民交流将从 5 月 10 日在冷水町举办的国际交流文化讲座开始。她说：“了解日本最好的方式就是在日本生活。希望向大家介绍韩国的语言、美食等文化信息，让大家更加了解韩国。”

澳大利亚柏斯市高中生来鹿

来自澳大利亚友好城市柏斯市的 11 人青年访问团 4 月 20 日来到鹿儿岛。在为期一周的时间里，访问团成员体验了当地的民宿生活和日本式课堂。除两位领队老师外，9 位成员都是正在柏斯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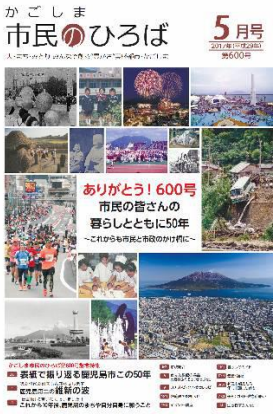
Mater Dei 学院就读的学生。2014 年 8 月，该校与鹿儿岛市玉龙高中结成姐妹学校。早在 2009 年，作为鹿市国际交流项目“青少年之翼”的一项内容，两校就已开始师生互访。4 月 24 日，澳大利亚青年来到玉龙高中，在日本师生的陪同下，尝试了和服穿法并体验了身着和服的日式礼仪。

艳丽的和服装束让大家倍感新奇，日式跪坐、礼仪招式和步行方法让大家在辛苦中感受到日本文化特色。有澳大利亚学生表示：“鹿儿岛的街道整洁干净，市民亲切友好。穿上漂亮的和服觉得很日本，酷酷的感觉。礼节不容易学希望快点适应。”

手机免费读报《市民广场》

鹿儿岛市生活宣传报《鹿儿岛市民广场》4 月起开通智能手机读报功能，市民可以下载软件“マチイロ”（machiyiro）免费掌读。

目前日本全国约有 5000 个自治体通过该软件共享地方报内容。下载软件后，用户只需注册所在地区、性别、生日等信息后即可使用。4 月号《鹿儿岛市民广场》内容将上传至该软件，最新动态可在市政府网站信息栏确认。据介绍，每月 1 号用户都可收到最新号发刊消息，还可裁剪保存感兴趣的文章内容。市广报课工作人员介绍说，《市民广场》登载了很多活动信息以及育儿、假期出诊医生等实用信息，希望 machiyiro 阅读方式让信息进一步服务大家的日常生活。



增设多语言地震避难标识板

为防备地震，鹿儿岛市正在积极推动紧急避难场所指定公园内的避难标识板的设置工作。城市整备项目去年支出约 1 千万日元在鹿儿岛市中央地域的约 140 个场所设置标识板。计划今年将继续拿出约 700 万日元预算在老城五条街区的 100 个地点新设避难标识板。据鹿儿岛市危机管理课介绍，现有的标识存在看板较小不易识别的问题，借鉴去年发生的熊本大地震及樱岛火山避难警戒等级升级的经验教训，市里考虑设立新看板。为了方便儿童及外国游客获取信息，除用日语标示外，看板还同时标注了“地震紧急避难场所”的繁、简体中文、英文以及韩文，并配有简明易懂的插画。在容易发生泥石流或易遭受海啸等自然灾害威胁的公园还设置了危险警告牌。危机管理课工作人员说避难看板的设置都在市民平日里经常接触的空间，希望通过新看板的设置进一步提高市民的防灾备灾意识从而推动灾害预防工作的深入开展。

2017 年春季外籍市民欢迎会 Heartyparty 举办

长居鹿儿岛的外国朋友大概都知道，为欢迎新近来到鹿儿岛生活、工作或学习的外国人居民，鹿儿岛市国际交流聚会每年都在新财政年度伊始如约而至。4 月 23 日，伴随新建市民活动场地かんまちあ(Kanmachia)的落成，作为鹿市国际交流财团推出的迎新盛典，交流聚会活动会场搬到了 kanmachia 公园内，并坚持历年贯穿始终的轻松欢乐主题，就内容做了相应升级，增添了不少新看点。活动除保留了广受好评的外国服装试穿、世界小吃亲口尝、插花、陶艺日本文化体验内容外，还创意推出国家和地区展台，简单易学的中国纸艺、身着韩服的展台女孩，色彩艳丽的澳洲点画、在短短的两个半小时里各展台向来场宾客浓缩展示了更丰富的国际文化元素。当天，众多外语服务志愿者活跃在现场，他们热情活泼博得在场宾客的一致好评，成为迎新交流会的一道亮丽风景。

第 20 届涩谷鹿儿岛小原良节盛大举办

5 月 21 日，第二十届涩谷鹿儿岛小原良节在东京都涩谷区华丽上演。由六十四个舞蹈团体组成的舞者仪仗队从涩谷道玄坂、文化村大道出发，浩浩荡荡，绵延数里。艳丽的舞服，悠然的舞步，晴阳在涩谷一带泼洒出浓浓的初夏味道。小原良调和着古朴的萨摩民风，热烘烘地氤氲在东京的繁华街头。同期，涩谷鹿儿岛市魅力宣传活动、萨摩物产展也陆续拉开帷幕，盛况空前。涩谷站前的八公犬广场工作人员发布着最新鲜的鹿儿岛旅游信息。物产展设有东急百货总店前等几大会场，展示鹿儿岛特色糕点及红薯烧酒等萨摩地区美食。一些具有代表性的鹿儿岛土特产店家、美容护肤用品生产商等商家也来到会场，纷纷拿出当家产品现场展销。说到鹿儿岛与东京涩谷区渊源，民间流传有源赖朝在镰仓开幕府后，统领涩谷一带的相模国豪族涩谷氏因在源平合之战中的战功在萨摩获封领地一方，后引族人迁居萨摩一说。为了更充分地介绍宣传鹿儿岛市，5 月 13 日奥林匹克纪念青少年综合中心还举办了涩谷小原良节预热活动，鹿儿岛歌手在歌谣秀上大展歌喉。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원

중국권 CIR 퇴임식

지난 3 월 15 일 가고시마시청 시장실에서 중국권 국제교류어드바이저 코우 세이테이씨의 퇴임식이있었다. 중국 북경출신인 코우 세이테이씨는 2013 년 4 월부터 2018년3월까지 5년간에 걸쳐 가고시마시 국제교류과에서 근무했다. 재직기간 동안 장사시와의 우호도시관계 업무와 가고시마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상담, 학교방문, 출장문화강좌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시민들과의 교류에도 힘써왔다.

중국권 신규 CIR 취임식

올해 4월 코우 세이테이씨의 뒤를 이어 중구권 신규CIR취임식이 있었다.중국산동성 타이안시출신인 키 코민(지 싱민)씨이다. 키 코민씨는 올해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원으로 근무하기전 2013년도에 야마구치현청의 국제교류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가고시마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며, 국제교류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통해 가고시마의 매력을 느껴보고 싶고, 가고시마에서 중국의 문화를 알리고 우호도시 장사시와의 교류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다졌다. 또한, 키 코민씨는 「출신지인 산동성에는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며, 중국은 넓고 역사가 깊은 나라임과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는 중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국의 정취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세요.」라며 모국의 매력에 대해 전달했다.

한국인 국제교류원 재취임

작년 4 월부터 신규 취임한 한국인 국제교류원의 재취임 위촉식이지난 4 월 6 일에 있었다. 재임기간은 올해 4 월 10 일부터 내년 4 월 9 일까지이다. 작년 한해 학교방문, 출장문화강좌 등 다방면에서 시민들과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인 국제교류원은 작년의 경험으로 배운것들을 통해 올해도 가고시마 시민분들과 많은 교류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며 전했다.

시민들과의 교류

하티파티

지난 4 월 21 일 토요일 오후 가고시마시 중앙공민관에서 하티파티가 개최됐다. 하티파티란 매년 약 300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는 가고시마에서 최대급규모의 국제교류파티로 여러 나라에서온 사람들과 교류를 즐길 수 있다. 하티파티에서는 각국의 전통의상체험이나 여러나라의 과자도 맛 볼수 있으며, 이케바나와 같은 일본문화도 체험 할 수있다. 파티가 끝날무렵에는 가고시마의 오하라마쓰리의 춤도 다 같이 춰보는 기회가 있다. 올해의 하티파티에는 베트남,네팔,스페인,미국등 13 개국의 나라 및 지역으로부터 참가하여 가고시마시 거주외국인 102 명을 포함한 252 명의 참가자가 회장에 모였다. 또한, 하티파티에는 가고시마현과

시의 국제교류원들에 의해 중국,미국,싱가폴,호주, 한국의 문화체험부스가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부스에서 각 나라의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었다. 싱가포르 부스에서는 국제교류원의 수제 스탬프 체험, 싱가포르 소개 책자등을 볼 수가 있었다. 또한 호주문화체험부스에서는 호주의 아이들이 즐기는 독특한 그림그리기 체험을 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체험부스에서는 한글로 이름쓰기, 한복색종이 접기를 체험할 수 있었다. 하티파티를 통해 가고시마시에 사는 외국인들과 일본인이 서로 만나 교류를 할 수있어 매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인터네셔널 포틀럭 파티

지난 5월25일 금요일 오후 가고시마시 노동자교류센터 다목적홀에서 인터네셔널 포트락파티가 개최되었다. 이번 이벤트는 호주 출신 시국제교류원 티아씨의 기획이벤트로서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재단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포틀럭파티란 참석자들이 한가지씩 요리를 지참하여 다 같이 즐기는 형식의 파티이다. 오스트레이리아, 한국, 중국, 일본등 7개국의 나라에서 총 72명이 참가하여, 여러나라의 요리를 맛보며 즐겼다. 진행자인 티아씨는 호주의 명물인 캥거루고기를 선보였다. 생소함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한국교류원이 선보인 음식은 잡채, 중국교류원이 선보인 음식은

중화요리에서 디저트로 유명한 찹쌀깨경단(지마구)였다. 중국교류원은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하나도 맛보지 못한채 금새 품절이 되어, 이번 이벤트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음식이 아니였나 싶다. 이 외 에도타이요리, 수제과자류, 일본요리등여러가지 군침이 도는 음식을 먹으면서 참가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류시간을가진 후에는 세계의 요리를 테마로 퀴즈대회가 열렸다.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팀을 이루어 같이 퀴즈를 풀어나가는것이 흥미로웠다.

중국어 강좌

취임한지 2 개월이 가까이 되는 중국국제교류원 키 코민씨는 통번역, 학교방문, 출장문화강좌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시민들과의 교류에 힘써오고 있다. 올해 7 월 24 일부터 9 월 18 일까지 매주 화요일 키 코민씨의 중국어 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중국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알아가며 즐겁게 중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다.

시정데마에토크

2018 년 올해의 데마에토크는 5 월 16 일부터 시작됬다. 가고시마시내의 공민관이나 학교등을 방문하여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원이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며 함께 교류하는 활동이다. 올해 4 월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원으로서 취임한 중국출신의 키 코민씨는 자기소개와 더불어 최신 중국의 소식과 식문화, 일본과 중국의 문화적차이점에 관해 소개한다. 호주출신 국제교류원 티아씨는 호주의 식문화와 예절에 관해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출신 국제교류원은 한국의 식문화와 한국의 생일문화에 대해 소개한다. 시정데마에토크활동을 통해 가고시마시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있다는 점과 일본인이 생각하는 외국에 대한것, 외국인이 일본에 대해 생각하는 점 서로 고쳐나가고 이해해 가야할 점에대해 알게된다.

히라카와 동물공원 새 가족

가고시마시의 관광지라고 하면 히라카와동물공원이 빠질수 없을 것이다. 히라카와동물공원은 일본규슈에서 유일하게 코알라를 사육하고 있는 곳으로써, 약 10 종의 1000 마리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고 면적이 매우 넓다. 온천의 도시 가고시마답게 동물을 바라보면서 족욕을 즐길 수 있다. 동물원 내 인기장소로는 사쿠라지마를 배경으로 유유히 걷는 기린들을 볼 수있는 아프리카 동물존과 코알라관이 아닐까 싶다.

올해 3 월 호주 킹슬랜드주 유원지에서 사육되던 두마리의 코알라가 히라카와 동물공원의 새로운 가족으로 찾아왔다. 이번에 온 코알라는 암수한쌍으로 5 살의 수컷 반브라와 3 살이 된 암컷 제인이다.. 히라카와 동물공원에는 기존 코알라와 합쳐 수컷 5 마리 암컷 6 마리로 총 10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반브라와 제인은 지난 4 월부터 일반시민에게 공개되고있다. 앞으로 2020 년까지 호주로 부터 암컷 코알라 한마리가 히라카와동물원으로 올 예정이다. 히라카와동물원은 가고시마의 가모이케동물원이 지금의 장소로 이전하여 1972 년 히라카와동물공원으로 이름지어 리뉴얼 오픈을 한것이다. 그뒤로도 2009 년부터 2015 년까지 리뉴얼계획이 이루어져 지금의 히라카와동물원이 되었다.

국제교류살롱 가고시마

가고시마시청 서쪽별관(니시벳칸)의 2층에는 국제교류살롱가고시마라는 곳이 마련되어있다. 원래는 가고시마시청 미나토오도리별관에 있었으나 작년 후반기경에 서쪽별관으로 이전했다.

이곳에는 가고시마시의 자매우호도시 및 교류중인 나라 및 지역(중국 장사시, 미국 마이애미시, 이탈리아 나폴리시, 호주의 퍼스시) 등을 소개하는 판넬과 기증받은 물건들이 전시되어있으며 소개영상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가고시마시가 자매우호도시로 청소년을 파견하는 「청소년의 날개산업」의 판넬 보고서가 전시되어있다. 판넬보고서에는 작년에 파견된 청소년들의 손그림과 추억이 가득한 사진들이 붙여져있어 어떠한 교류를 즐겼는지 알 수가 있다. 가고시마시의「청소년의 날개산업」은 1990년도 부터 시작되어, 자매우호도시에 청소년을 파견하여 외국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깊은 교류를 함으로써 국제적인 시야를 길러 장래에 가고시마시의 국제화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긴코완공원

긴코완공원은 가고시마시 히라카와동물공원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히라카와 동물공원근처는 주변이 산림으로 가득차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긴코완 공원은 시민의 휴식처가되는 캠프장 시설, 산책로, 광장, 장미정원등이 갖춰져 있어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즐길 수 있는 장소이다. 특히 이 공원의 인기스팟은 장미정원이다. 이곳에서는 봄에서 가을까지 33종류의 장미가 피어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있다. 지금 이 시기의 주말에는 장미를 보러 놀러오는 가족 이용객이 많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캠프장에는 약 2만9000평되는 넓이로 취사장과 쉽게 캠프를 즐길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마이애미시고등학생 가고시마 방문

가고시마시와 자매도시인 마이애미시로부터 남학생 2 명, 여학생 1 명, 인솔교사 1 명으로 총 4 명이 가고시마를 방문했다. 6 월 12 일부터 20 일까지 가고시마에 체재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6 월 13 일 수요일 시장예방으로 가고시마시청을 방문. 6 월 14 일부터 19 일까지는 가고시마시 고난고교 학생들과의 교류활동과 시내시찰을 통해 일본의 문화와 관습을 체험해보고 깊은 교류관계를 다진다. 마이애미시로부터의 방문은 가고시마시가 매년 자매도시로 중고생을 파견하는 청소년의 날개사업의 교환프로그램으로서 1993 년부터 지금까지 15 회정도 이루어졌다.